

Doctor Q&A

독자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최대한 성의껏 전문가에게 질문을 구하고 자료를 검색하여 답해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꺼워진 등지방 장기비육으로 얇게
할 수 있나요**

농장에서는 그동안 거세우 전량을 축협을 통해 출하하여 A-B등급을 약 90%이상의 제법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출하4개월전 육질진단을 통해 몇 두정도 등지방이 15~20미리 정도 되어 C등급이 불가피하다는 예비판정을 받아서 그 개체들만 남아있는데 지금쯤은 등지방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지 아니면 결국 C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등지방두께는 육성기이후 농후사료
급여방법에 의해 결정...**

질문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내지방이 덜 침착된 것은 추가적인 사양기간의 연장으로 어느 정도 개선시킬 수는 있으나 등지방두께가 이미 두꺼워진 것은 추가적인 사양기간 연장으로 개선시키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육우를 장기비육 시킬 때 지방이 축적되는 순서는 신지방, 복강지방, 피하(등)지방, 근간지방, 근내지방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원하는 근내지방이 제일 마지막에 축적되니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근내지방을 제외

한 지방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육성기에서 비육전기까지의 농후사료 제한급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제한사양을 하였더라도 무리 중에 힘이 세어 다른 소들이 먹어야 할 것을 빼앗아 먹어 제한사양의 효과가 없을 경우도 빈번합니다.

이때에는 지나치게 식탐이 많은 개체를 따로 사육하거나 자동스탄을 이용하여 제 양만 먹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역시 정확하게 급여하기는 어렵겠죠. 아무튼 근내지방은 12개월령에 서서히 축적되기 시작하여 30개월령까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적어도 12개월령까지는 농후사료를 체중의 1.5%, 이후 22개월령까지 1.7~1.8%정도로 제한급여해야 합니다.

등지방이 이미 두꺼워진 상태라면 사료를 제한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28개월령에 출하하신다면 지금이 24개월령이고 체중이 600kg내외 일거라 예상됩니다. 지금은 자유채식할 시기, 이 경우 체중의 1.6~1.7%정도를 먹는데 농후사료를 약간 줄여 체중의 1.4%정도로 급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시험이 지금 진행중이라 확실한 자료는 없습니다만, 지금보다 4개월 후에는 상태가 호전될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등지방두께는 육성기 이후 농후사료 급여방법에 의해 결정되며 비육 후기에 조절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장선식
전 화 : 033-330-0615




발정에 관하여...
발정이 시작되고 승가 후 12시간 후 수정을 시키고 1차, 2차수정 후 발정이 계속유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승가허용 후 알맞게 수정을 시켰는데 별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발정 허용을 안할 때까지 수정을 시켜야 하는지요.

A 수정적기는 개체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귀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발정발견 후 12시간에서 16시간 사이가 평균적으로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수정적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는 평균적인 개념이고 개체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즉 발정이 짧은 개체는 7시간에서 길게는 72시간까지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밀히 수정적기는 개체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먼저번의 발정양상이 다음 번에도 반복되는 경향입니다. 귀하께서 잘 관찰하셨다면 문의하셨던 소가 전번의 발정에서도 지속시간이 길었을 것입니다.

발정지속 시간이 긴 소는 당연히 수정적기도 많이 늦어집니다. 이러한 소는 통상적으로 수정

을 시키고 8시간에서 10시간 후에 난소의 난포를 검사하여 배란이 되었다면 수정을 시키지 않고 배란이 되지 않았다면 재차 수정을 시킵니다. 따라서 귀하의 소는 발정지속 시간이 긴 개체임으로 난포검사로 배란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에서 종종 배란이 되지않는 배란장애가 동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때에는 인공수정과 동시에 배란촉진제를 투여하는 것도 수태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자 : 축산연구소 한우시험장 이명식
전 화 : 033-330-0625



주사쇼크
금요일 저녁에 생후 45일된 송아지가 설사를 해서 카도살과 타도콤프를 주사하였는데 토요일오후부터 송아지가 힘이 없어 계속 앉아만 있고 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사쇼크 같기도 합니다. 젖도 먹지를 않아서 보리차와 상담 답글에 게토레이를 설사시 먹여 보라는 글을 읽고 먹여 보았는데 괜찮은 처방이었는지? 오늘 아침에 젖을 먹지 않아 분유를 좀 먹였습니다.

A 지사제도 경구로 먹여주는 것이...
어린 송아지에게 주사를 하면 근육내 근육통증이 일주일 이상 갑니다. 당연히 송아지에겐 통증 스트레스가 큼니다.

설사를 했으면 설사에 대한 대중요법으로 수액을 투여하거나 먹여주거나 하는 것이 좋고 지사제도 경구로 먹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로서는 5%포도당을 오전에 수액요법의



로 해주고 오후엔 하트만액으로 수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타지 마지고 투여해주세요. 경구로 지사제를 먹여준 다음에 보리차나 전해질 음료를 1일 300ml이상 먹여 주세요.

답변자 :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 화 : 041-661-4681



축사신축에 따른 저장시설과 표준설계도

40여두의 한우를 일괄사육하고 있는 농가로 금년에 축사를 기존축사 옆의 별도 필지에 전용을 받아 신규축사를 퇴비사 포함 400㎡(축사 90-105평)를 지을 계획을 가지고 담당부서를 방문 자료입수를 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제약이 있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1) 지금까지 지어온 축사는 축산오폐수처리시설이 면적의 15% 이상이 되면 허가 되었는데 새로 증축하려고 하니 몇 년 전부터 시행된 저장시설이 신규축사가 아닌 소급하여 면적 확보를 하라고 하는데 이렇다 보니 저장시설 약 36평정도(옹벽높이 1m)필요 하고 신규 축사의 40%가 이 면적으로 들어가네요. 물론 그동안 설치 하여온 퇴비사는 기존의 면적으로도 신규 축사 면적을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이(45평)되어 퇴비사 증축은 필요 없었습니다. 저장시설은 같은 명의로 그동안 지어온 축사에 소급하여 적용을 받는지요.

2) 신축신고 절차를 밟아야 하기에 허가대상인 400㎡이하로 지으려고 하는데 400㎡이상일 경우 표준설계도를 사용하면 설계비용 등등에 혜택을 받고 하였는데 실무자는 표준설계도 의미가 없어졌기에 400㎡이상일 되면 허가에 따른 모든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간혹 표준설계도를 사용할 수가 있다면 어디에 구할 수가 있을까요?



120평 미만으로 여러 동을 설치하는 방법도...

1. 현재 한우사가 톱밥깔짚우사로서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의하면 저장조는 별도로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며 행정에서 설치 필요를 주장한다면 환경부에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현 퇴비사의 면적이 새로 신축할 우사를 포함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퇴비사의 측벽의 높이가 2.3m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합니다(농장은 1.2m높이기 때문에)


2. 축사표준설계도 적용이 안 되는지

건축법에서 건축에 관련 사항을 시·군조례로 위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건폐율 규정이 대표적인 사항입니다. 표준설계도는 이용할 수 있지만(농협, 구축협 지도계) 120평(400제곱미터)이상의 경우는 감리 및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120평 미만으로 여러 동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으며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축사를 일정면적(120평) 이하로 건축하는 경우는 신고가능 면적(건축법시행령제 11조)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축사 1동의 면적, 2층돈사의 경우 1, 2층을 합한 면적) 400㎡(약 120평) 이하인 축사이며 축사표준설계도를 이용하는 경우 신고가능면적(건축법시행령제 11조) : 축사 1동의 면적을 축사표준설계도의 면적(가변형설계도의 경우 도면에 명기된 가변면적)으로 하여 여러 동 건축가능하며 단, 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려면 해당 시·군지역 건축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답변자: 축신연구소 가금과 강희설
전 화 : 041-580-6703(019-672-0146)



송아지가 못 일어나요.
며칠 전 의뢰한 송아지가 일어나질 못하는데 세워놓으면 다리를 떨다가 주저앉아버리고...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난감합니다. 물은 먹어도 분유는 먹지 않으려 합니다.

A **너무 허약하다면 10%포도당주사를...**
다리를 떨다가 주저앉는 것은 결국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린 송아지가 근력을 단시간에 회복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식욕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앉아있더라도 우유나 대용유를 지속적으로 먹이어서 기운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유나 대용유를 먹다보면 언젠가는 일어납니다. 만일 지금 당장 너무 허약하다면 10%포도당주사를 수액요법으로 해주시거나 경구로 먹여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 화 : 041-661-4681



소가 설사하고 밥을 안 먹어요.
6개월정도 된 암송아지를 사온 지 15일정도 됐으며 처음에는 이동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잘 안 먹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설사도 하고 밥도 거의 먹지를 않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25%포도당을 수액 해주시고 치료도 병행...**
이동 중에 스트레스로 인해 호흡기 질병이 악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입 즉시 해열제, 영양제, 항생제를 3일간 투여해주시고 농후사료는 구입 첫날엔 급여하지 마시고 다음날부터 정상급여량의 20%를 급여하고 3일째엔 40%, 4일째엔 60% 등으로 조금씩 증량해서 6일째에는 정상급여량을 급여해주세요. 현재 상태에선 항생제와 영양제, 해열제를 3일간 집중 투여해 주시고 2일 쉰 다음 다시 3일간 동일하게 집중적인 치료를 해주시고 추이를 보아주세요. 만일 잘 낫지 않고 안 먹으면 25%포도당을 수액 해주시고 치료도 병행해 주세요.

답변자: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임연수
전 화 : 041-661-4681

※ 위 내용은 축신연구소(<http://www.nlri.go.kr>) 및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http://www.limc.co.kr>)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한우농기에서 경영과 사영관리 함에 있어서 유익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